

치 사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계절입니다. 내가 가진 소중함을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들은 마음까지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수확의 향기로움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시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실천해 온 불교중앙박물관은 어느덧 내년이면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느 박물관보다 자유롭고 불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전통문화와 불교문화 홍보에 앞장 서 왔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원력에 더하여, 올해의 특별전으로 정성을 다한 <꿈꾸는 즐거움, 극락極樂>은 아미타여래와 극락세계에 대하여 관람객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전시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미타신앙은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일반대중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여 깊게 신앙했던 것으로, 이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은 시대마다 활짝 꽃피어 현재까지 전승되었습니다.

아미타신앙은 일반적으로 ‘정토신앙’이라고 통용되며 ‘아미타여래의 본원력本願力을 믿고 극락정토에 왕생하고, 나아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아미타여래와 극락세계를 표현한 성보문화재를 대상으로,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그들의 노력을 직접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꿈꾸는 즐거움, 극락極樂>은 지금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고, 나와 이웃 모두가 정토에 다다르겠다는 아미타신앙을 감동으로 전해 줄 것입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중 모두가 고통과 불안을 위로받고,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뜻 깊은 오늘 귀중한 작품을 출품해 주신 여러 박물관과 기관, 그리고 사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수확까지 풍성하게 이루겠다는 모두의 공덕으로 우리 사회가 밝게 비춰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년(2016)년 10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